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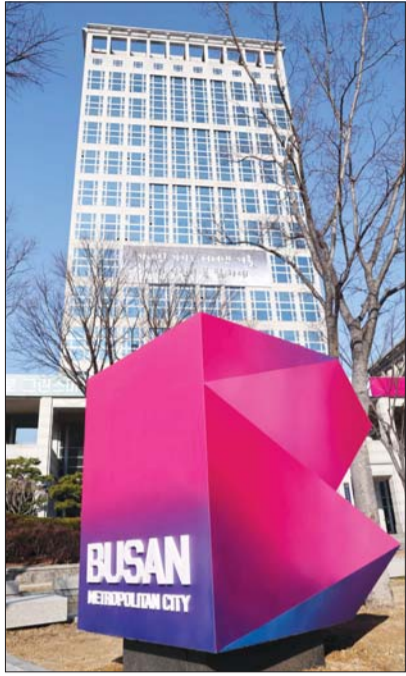
# 부산시, 유망 금융기술 기업 키운다... 195억 예산 투입

‘핀테크 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4대 과제·10개 세부 사업 구성  
사업화·공간·인건비 종합지원

부산시는 지역의 유망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핀테크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핀테크 산업 육성 계획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부산' 실현을 목표로, 성장 잠재력이 큰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확장(스케일업)을 이루며 해당 기업에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화와 공간, 인건비 등 3종 종합 지원과 함께 기반 시설(인프라), 사업 고도화 강화로 약 195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유망기업 확장(스케일업) 및 투자생태계 강화 ▲부산 특화



부산시청.

금융기술(핀테크) 신사업 발굴 추진 ▲ 금융기술(핀테크) 허브 운영 고도화 ▲ 금융기술 협치(거버넌스) 혁신 등 4대 과제 1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부산시는 '유망기업 확장(스케일업) 및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해 확장(스케일업)이 필요한 유망기업을 5년 동안 20여곳을 선정해 이들 기업에 더욱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정착을 위한 육성 공간을 조성한다.

또 BNK금융지주 등 선도기업과 금융기술(핀테크) 허브 신생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으로 기업 자문(컨설팅), 창업 기획(엑셀러레이팅) 등을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스 풀'과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난 2월 시-한국거래소-부산상공회의소간에 체결한 혁신성장 기업 발굴·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성장제도 설명회, 맞춤형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이끈다.

'부산 특화 금융기술(핀테크) 신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시는 지역 특화 금융기술(핀테크) 신규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논의하고 기업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기술(핀테크) 허브 운영 고도화'를 위해 시는 성과 기반의 금융기술(핀테크) 전문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을 핵심 지표(매출, 투자, 고용) 위주로 더욱 고도화하고, 기업 투자기반 성장 도약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또 '금융기술 협치(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등 금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최, 국내 최대 금융기술(핀테크) 행사인 '코리아핀테크 위크 2026' 부산 유치, 찾아가는 금융기술(핀테크) 지원단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을 건의하며 정부 지원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영양군

#### 고향사랑기부제 긴급모금 실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을 거쳐 영양으로 확산함에 따라, 영양군은 총력을 다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양군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긴급모금'을 시행하였으며 모여진 기금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 및 산불 피해 복구에 기금 사용할 예정이다. 모금 목표액은 20억원이며, 모금 기간은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해남군

#### 영덕군에 긴급구호물품 지원

해남군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했다. 해남군은 30일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 담요, 천막 등 185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차량을 이용해 영덕복지재단으로 전달했다.

또한 해남 옥천농협에서도 옥천농협 OK라이스센터 생산한 땅끝햇살 즉석밥 4800개 물량을 긴급히 확보하고, 생수 500개 등을 더해 총 54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련해 지원에 동참했다.

물품 전달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과 명현관 군수, 이성욱 군의회의장 등이 함께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북교육청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비 지원

경북교육청이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 4700여 명에게 치료지원비 96억3000여만원을 지원한다.

3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치료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7만원, 연 최대 204만원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고 수준이다.

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심리 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 훈련, 보행훈련 등이며 학생들은 이 중 가장 적합한 1개 영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상주시

#### '상주농업기계박람회' 성료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1일 경북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25~28일 상주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린 상주 농업기계박람회에 13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농기계와 최신 농업 로봇기술을 선보였다. 박람회장은 240개 업체에서 400개의 기종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시는 3만7228건의 상담과 약 80억원 이상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주(경북)=김준한 기자

## 대구시, 지자체 최초 'AI상담' 운영

차량등록·노후자동차·여권 분야  
9월까지 AI상담시스템 시범운영

대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콜센터에 AI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상담 분야는 차량등록, 노후자동차, 여권 등 3개 분야이다.

120달구별콜센터 AI상담시스템은 민원인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후, 지식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한 최적의 답변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은 4월부터 9월까지로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되며 1단계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단계는 평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시범운영 기간 AI상담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오류 수정,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시

범운영 종료 후에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한 AI상담시스템은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주변 소음 등으로 AI가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담원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시민들은 120달구별콜센터 이용 시 AI상담, 상담원, 보이는ARS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0달구별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AI상담 이용 방법 등 콜센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07년부터 120달구별콜센터를 운영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AI상담시스템 도입은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중 하나인 ABB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될 전망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울산시, 시민 위한 공간으로 시청사 재단장

시청 본관 1층 로비 개방

울산시는 시청 본관 1층 로비를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단장하는 사업을 완공하고 4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본관 건립 후 로비 내에 여러 사무실을 배치해 사용해 왔으나 답답한 분위기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재단장 사업에 착공해 도서관, 전시관, 민방의 장소 등을 설치하고 시청사 1층을 시민에게 개방하게 됐다.

로비 공간에는 8000여 권의 책을 비치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휴식하며 책을 볼 수 있는 열린 도서관과 일본, 중국 등 국제교류도시에서 받은 각종 기념품을 전시하는 국제교류전시관이 들어섰다.

로비서쪽에는 시금고인BNK울산경남은행과 NH농협이 1별관에서 이



울산시는 시청 본관 1층 로비 재단장 사업을 완공하고 1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전해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검색센터와 어려운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실도 마련했다.

또 민원 안내창구와 청원 경찰실을 확장해 시민들이 청사를 방문하는 경우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내창구 옆 벽면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시정홍보와 울산 관광 지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울산=이도식 기자

## 포항시, AI·디지털분야 스타트업 지원

체인지업 그라운드 지역혁신 모델  
공모 최종선정... 국비 100억 확보

포항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체인지업 그라운드 지역혁신 모델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AI·디지털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거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엑셀러레이터 성공 사례 중 가장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체인지업 그라운드 혁신모델을 지역에 구축하는 것으로 그간 포항시와 경북도가 포스코힐딩스와 함께 사업을 준비해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은 ▲AI스타



AI스타트업 인큐베이팅센터 'SPARK' 조감도.

트업 인큐베이팅센터 'SPARK' 구축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성장지원 ▲포스코 벤처플랫폼 연계 고성장 집중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포항경제자유구역 내에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50개 사업주 규모의 인큐베이팅 센터를 구축한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부산해수청, '기관장 행정협의회' 진행

부산시-부산항만공사와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1일 오후 2시 부산해수청에서 '부산청·부산시·BPA 기관장 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기관장 행정협의회는 부산해수청을 비롯해 부산 해양과 항만을 대표하는 3개 기관이 '부산항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부산항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김혜정 부산해수청장을 비롯해 김광희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3개 기관 기관장들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다.

3개 기관장 행정협의회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8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데, 현재 북항 재개발 등 지역 현안과 국제 물류환경 변화 등 안팎으로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지역 업계 기대도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항 재개발부터 부산 북항 화물차 주차장 조성, 2025 부산항 축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등 각 기관에서 제출한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회의 결과는 실무 협의회를 통해 그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